

# “바로 뛰어 선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”

## 정재준 부에나파크 시의원 후보, 선거 캠페인 돌입



▲정재준 부에나파크 시의원 후보(앞줄 왼쪽에서 5번째)가 선거대책사무실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고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를 다짐했다.

오는 11월 열리는 부에나파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정재준 후보(사진)가 지난 17일, 부에나파크 시의회 및 한인단체 관계자, 지지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사무실(8431 Commonwealth Ave., Buena Park, CA 90621)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 돌입을 선언했다.

이날 행사에서 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부에나파크 버지니아 본 시장은 “부에나파크시의 플래닝 커미셔너로 오랜 기간 활동한 정 후보는 누구보다도 시의 현안에 대해 잘 아는 후보” 라면서 “2지구 시의원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” 이라고 말했다.

정 후보는 “바로 뛰어 선거에서 꼭 승리해 부에나파크 시를 살고 싶은 도시, 비즈니스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” 이라며 “신규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유치, 활성화시키고 범죄없는 안전한 도

시로 만들기 위해 소방국과 경찰국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며 시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노력할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정 후보가 출마하는 부에나파크 제2지구는 한인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비치 블러바드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아테시아 블러바드, 남으로는 91번 프리웨이 사이에 위치한다. 현재 이 지역구에는 정 후보를 포함해 3명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. 현직 시의원인 베스 스위프트의 출마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.

정 후보는 1998년부터 부에나파크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아리랑 축제재단 회장과 남가주한인중앙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다.

▶ 문의: (714) 448-7743

# LA 총영사관,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·재발급

LA 총영사관이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·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. 이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미국 내 장기체류자들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.



서비스 대상은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중인 경우와 분실 재교부 신청자,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등으로 제한된다.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정기적성검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재발급 및 갱신할 수 없다. 또 한국에서 음주 등 범죄기록으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된 사람,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.

서비스 수수료는 12달러이다. 사진 1장(3.5cmX4.5cm)과 운전면허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서, 운전면허증 원본, 여권 원본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, 위임장도 함께 지참하고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.

이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남부, 애리조나, 네바다, 뉴멕시코주 체류자에게 적용된다.



# 럭키타이어

## 여름맞이 감사 대 세일

### HANKOOK KINERGY ST H735 P195/65R 15 \$65.00 Each



## 브레이크 체크 업 Free 얼라이먼트 체크 업 Free



NEW TIRES  
OIL CHANGE  
BRAKES

# (714)530-2301

13128 Magnolia St. #A  
Garden Grove, CA 92844

